

# 코로나사망 낙달만에 최다 '적신호'

## 4차접종에 먹는 치료제, '이부실드'까지 패스트트랙, 당직병원, 복지서비스 연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약 1년 달만에 최다치로 나오는 등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사망자 수는 84명이다. 이는 지난 4월29일 136명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한 달 전만 해도 20~30명대를 유지했으나 6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사망자 규모도 늘어 최근 이를 연속 80명대, 최근 일주일 평균 59.1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간 사망자 수 역시 현재까지 912명으로, 지난달 513명에 약 2배에 가깝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주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8월 2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95.8%인 316명이 50세 이상이다.

정부는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정부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예방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차 접종 완료율 통한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 대비 96.3%, 2차 접종군 대비 80%, 3차 접종군 대비 75% 감소했다.

지난 19일 0시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41.3%,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46.1%다.

면역 형성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예방용 항체주사에 '이부실드'는 총 473명이 투약 받았으며 1512명이 사용을 예약한 상태다.

의료 체계에서도 고위험군의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적극 중이다.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를 통한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3개소까지 확충했고 현재는 내실화를 위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처방률이 낮은 먹는 치료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18일 기준 2148개소 확충했으며 향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말부터는 중증 응급환자나 수술을 앞둔 환자, 분만·소아 환자를 위한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며 첫 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지정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폐지 후 건강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등 보건복지사업 인력 등이 방문이나 전화 통화로 독거노인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를 연계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고위험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면 치명률을 좀 더 낮추면서 사망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완도소방, "도시지역 헬기장 실태조사와 이·착륙장 신규 발굴"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관내 도시지역 헬기 이·착륙장 실태조사 및 신규 발굴(30인 이상 유인도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흥소방, 여름철 풍수해 재해우려지역 현장 점검

지난 17일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관내 인명 및 재해 우려 지역 현장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사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17일 봉강면에 위치한 상봉마을을 찾아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 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여수소방, 소방공무원 자녀 현장체험 학습 운영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16일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서내로 초청해 현장체험 학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광주 동부소방, 중점 관광지 소방특별조사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중 일환으로 중점 관광지 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담양경찰, 보행자 위협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을 관내 운전자 대상으로 상습 정차 구간인 중앙로 파리바게뜨에서 문화회관 방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한번 나면 대형참사"...창고시설 특화 안전기준 만든다

### 61명 사망·226명 부상...인명피해 287명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가 7000여건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7388건의 창고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696건 ▲2018년 1490건 ▲2019년 1392건 ▲2020년 1416건 ▲2021년 1394건 등으로 연평균 1477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총 287명(사망 61명·부상 2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 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창고시설은 대규모의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렵고,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지난 2020년 7월21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는 총 13명(사망 5명·중상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창고시설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 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또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



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행정예고,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황기서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파란 하늘 아래 물놀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목골 내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상층 잔해 철거 한 달반 미뤄졌다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재시공에 앞서 무너진 상층부 벽체·기둥·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이 날씨와 공법 변경 영향으로 지연됐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무너진 화정아이파크 201동 26층~38층의 벽체·기둥·잔해 철거 작업이 다음 달 1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말로 늦춰졌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201동 상층부 벽체·기둥을 제거하고 잔해를 해체하는 '안정화 작업'을 통해 철거 위험 요소를 줄인다. 이후 본격적으로 201동 전체 철거에 돌입한다.

이 안정화 작업은 애초 다음 달 16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바람으로 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공정 일정이 한 달 반가량 지연됐다.

특히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공법을 바꾸면서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잔해 제거 시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사용했지만, 비산 먼지가 많이 날리자 콘크리트 단면을 동그랗게 구멍 뚫는 코어링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다.

코어링 공법은 비산 먼지가 덜 발생하는 대신 기둥 1개 층을 제거하는 데 기존 공법보다 2~3시간이 더 걸린다.

현재까지 201동의 동쪽 5개 층 기둥, 남쪽 2개 층 기둥이 잘려냈다. 상층부 벽체를 고정하고 있던 타워브레 이상 일부도 해체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쪽·동쪽·남쪽의 붕괴된 잔해를 26층까지 차례대로 제거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건물 해체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 심의받는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는 계획서 심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다음 달 16일까지 안정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지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이 오는 10월 말까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층~38층이 무너져 하층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붕괴 참사 114일 만인 지난 6월 4일 임주 예정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